

책의 운명과 종이의 운명

金彦鍾

경희대 중문과 교수

자연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다음 세기쯤에는 冊과 종이(紙)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박물관에 가야 구경할 수 있을 거라는 보도에 접한 적이 있다. 놀라운 일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필자까지도 포함하여...

그러나 사실 '冊'은 이미 오래 오래 전에 비명횡사로 그 영광과 오욕이 交織된 긴 삶을 마감했으며 미이라로 남은 시신의 일부를 박물관에 가져야 볼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다.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서의 '冊'은 글자 모양 그대로 직사각형으로 자른 대나무나 나무 조각을 세로로 늘어 놓고 삼끈이나 쇠가죽끈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보통 50여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역순으로 펼쳐 보았다. 孔子도 周易의 經文을 이런 '冊'을 통해 읽었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묶은 가죽끈(韋編)이 세번이나 끊어졌다(三絶)는 사마천의 기록은 잘 아는 이야기겠다.

중국의 中原이나 남부지역에는 대나무가 많았으므로 竹冊이, 서부와 북부지역에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木冊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竹冊은 크기와 용도에 따라 簡·策·牒·札 등으로 불려졌고, 木冊 역시 方·版·牘 등의 異稱으로 불려졌다.

그러면 '冊'은 언제부터 '글자를 적기 위한 것'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殷代(BC 1600~BC1028)에 쓰여진 甲骨文에 '冊'자가 이미 등장하고 있음을 보아 적어도 三千年 이전부터 '冊'이 그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에 '冊'만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다. '冊'보다 앞서서는 오지그릇(陶器)이 그 역할을 했고, 동시대에는 거북의 가슴뼈(腹甲), 등뼈(背甲)나, 소 양 돼지 등 짐승의 어깨뼈(肩胛骨), 종(鍾), 솥(鼎) 등의 청동기 바위나 돌 같은 암석 등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殷代중엽부터 周代(BC 1027~BC221) 중엽까지 유행했던 것으로 甲骨文, 金文, 石鼓文 등이 지금도 일부가 남아서 그 역사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용도로 쓰였던 것이지 '冊'처럼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은 아니었다.

애석하게도 그 당시의 '冊'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뼈 쇠 돌과는 달리 '冊'이 쉽게 썩어버리는 탓이다. 다만 가장 오래것으로는 戰國時代(BC 475~BC 221)의 '冊' 중 일부가 기적으로 出土되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冊'은 西漢시대까지만 해도 왕성한 활동상을 보였다. 전국말기부터 서한초기까지 쓰기도 쉽고 휴대하기에도 편리한 비단(帛)이 나타나 '冊'의 지위에 한때 위협을 가했지만 비단은 워낙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기에 普及될 수 없었으므로 별 타격이 될 수 없었다. '冊'에 치명타를 먹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밀어낸 것은 종이(紙)이다.

종이는 漢武帝 때 처음 만들어졌다. 灑橋紙라 불리는 이 최초의 종이는 너무나 粗惡한 것이었으므로 '冊'에 큰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東漢중엽에 蔡倫이라는 宦官이 질도 썩 좋아지고 제작비도 싼 개량 종이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자 '冊'은 永訣終天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채륜은 和帝在位(AD 89~104) 때 이른바 蔡侯紙를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冊'의 출생시기를 대략 은대중엽으로 잡는다면 BC 1300년부터 AD 100년까지의 1400년간이 '冊'의 壽命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冊'을 대신하여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종이, 그 원료가 다양해지고 제작 방법도 개선되는 등 日新에 日新을 거듭하며 독서인의 사랑을 장장 1900여년간이나 독점해 온 종이의 수명이 다할 날이 정말 올 것인가? 그리하여 대선배인 '冊'과 박물관 진열대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닥뜨릴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뉴스	2	어린이가 읽을만한 과학도서·외
표지	4	한국학 총본산 규장각의 고서정리
시론	5	고문헌 정리작업, 무엇이 문제인가 — 천혜봉
초점	6	우리 옛책 목록화작업의 현황과 과제
시집서평	8	시집읽기, 그 즐거운 동일화의 초대 — 반경환 비평가가 끄는 이 계절의 시집
서평	10	김용덕 「신한국사의 탐구」 — 조광 카울바하 「칸트 비판철학의...」 — 김진
	11	변형운 외 「경제민주화의 길」 — 이재희
	12	임기중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 박노준 김주연 「문학, 그 영원한 모순...」 — 최동호
	13	마중가 「풍귀렌과 한귀렌」 — 허세욱
출판화제	14	현대의 소외계층 도시빈민 연구서들
화제의 책	15	새롭게 밝혀지는 이순신과 거북선의 진실
출판시론	16	사회학의 '베버 르네상스' 오려는가 — 박성환 마르크스 인기 시들해지며 다시 본격적 관심 끌어
제언	18	서체 저작권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노수용 한글글자꼴 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이 책 그 사람	20	「벽오금학도」 퍼낸 이외수씨 「PD는 마지막에 웃는다」 퍼낸 주철환씨
	21	「생활기공」 퍼낸 이동현씨 「발바닥문화예술기행」 낸 최일단씨
해외신간	22	나라 밖서 주목 끄는 세계의 신간 — 이봉호
세계의 책	24	매스컴이 제공하는 이미지의 실체 — 배병삼
청소년도서	26	출협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 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4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

표지사진 / 김홍진